

[목포권]

목포도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市, 용역 최종보고회 갖고 도입 결정

내년 위원회 구성 용역 발주·시민홍보

목포에도 오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목포시는 지난 3일 대중교통계획 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24개 노선 170대의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2009년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내버스 공공성과 버스회사 측의 적자 보전을 위해

서는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1년간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용역 발주, 시민 홍보, 시내버스 회사와의 협약 등 준비에 착수한다.

그러나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 ▲생산

성 저하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 선결 과제로 지적됐다.

목포시는 지난해 버스회사에 영업 손실분 36억9천여만원을 지원했으나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보전 비용이 최대 2.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목포지역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로 수익금은 매년 1% 감소하고 운송원가는 약 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대당

운송원가와 버스 운송수입금 등을 감안하면 과거 시내버스에 지원되던 비용을 제외하고 준공영제를 위해 실제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며 “준공영제 조기 시행을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무게를 두고 버스회사 노사측과 협의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광주, 대전, 창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도내에서는 여수시와 순천시가 각각 오는 2009년, 201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국가사적 지정 목포 옛 일본 영사관

‘문화 역사관’으로 바뀐다

동양척식회사 건물 연계

시, 역사타운 조성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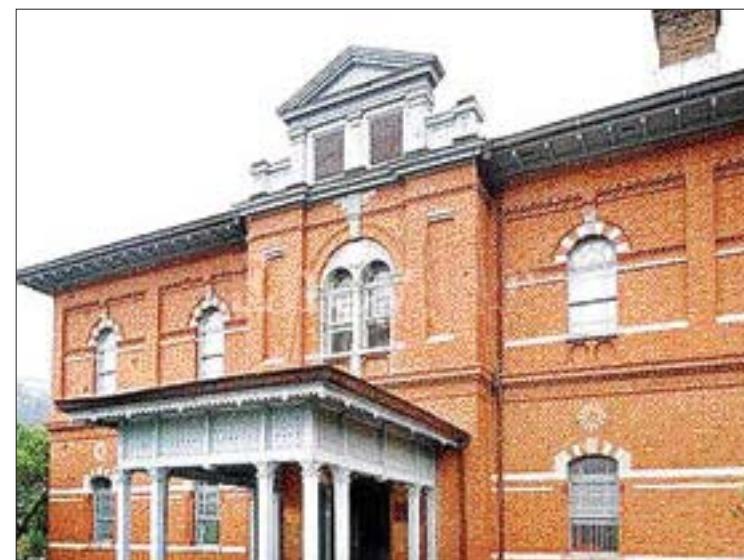
국가사적 제 289호인 목포시 유달동 구 일본 영사관 건물(사진)이 ‘근대 문화 역사관’으로 바뀐다.

목포시는 지난 1900년 완공된 전 체면적 6천575㎡, 2층 규모의 구 일본 영사관 건물을 근대 풍속 및 역사 자료를 전시하는 근대문화 역사관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재청에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요청했다.

시는 구 영사관 건물과 인근에 있는 옛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건물 등을 연계, 근대 역사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관광객과 일본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 건물은 목포부청사, 목포시청, 목포시립도서관, 목포문화원으로 사용되면서 관리 소홀로 외벽에 싸 올린 벽돌이 깨진 채 방치되는 등 보수, 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이 건물을 내부에 벽난로가 설치돼 있는 등 서구식을 가미한 독특한



양식으로 건축사적 의미가 커 1981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현재 이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는 목포문화원은 건축사적 의미를 살리면서 다양한 전시·행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옥암지구 단독주택용지 62필지 공급

목포 옥암택지개발지구 내 단독 주택용지 62필지가 공급된다.

전용 주거지역인 53평지는 2층 이하 단독주택만 신축이 가능하며 면적은 216.8㎡~305.8㎡, 가격은 ㎡당 평균 52만 4천215원이다.

또 일반 주거지역인 9평지는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며 1층에 한해 제 1·2층의 균형생활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면적은 277.2㎡~439.8㎡로 ㎡당 평균 50만 8천229원에 구입할 수 있다.

단독 주택용지 공급 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목포시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에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공급받게 된다. 이를 토지는 오는 12월 이후부터 건축이 가능하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영어도 배우고… 문화 체험도 하고…

목포대,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습캠프’ 운영

목포대학교가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학습캠프’를 운영한다.

목포대 언어교육원(원장 김재준 교수) 주관으로 오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열리는 이번 캠프는 원어민 강사의 사전 평가와 면접으로 초급반 10명, 중급반 10명 등 모두 20명을 선발한다.

특히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생 전원이 대학 기숙사에서 학습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기본 교육 과정 이외에 놀이 등을 통해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목포대는 다음달 8일부터 22일 까지 초등학생 20명을 선별해 하루 4시간씩 영어회화와 영문법 등을 교육하는 ‘비합숙 영어캠프’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언어교육원 행정실에서 받고 있다. 문의 (061-450-2950, 6200)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영어도 배우고… 문화 체험도 하고…

목포대,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습캠프’ 운영

목포대학교가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학습캠프’를 운영한다.

목포대 언어교육원(원장 김재준 교수) 주관으로 오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열리는 이번 캠프는 원어민 강사의 사전 평가와 면접으로 초급반 10명, 중급반 10명 등 모두 20명을 선발한다.

특히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생 전원이 대학 기숙사에서 학습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기본 교육 과정 이외에 놀이 등을 통해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목포대는 다음달 8일부터 22일 까지 초등학생 20명을 선별해 하루 4시간씩 영어회화와 영문법 등을 교육하는 ‘비합숙 영어캠프’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언어교육원 행정실에서 받고 있다. 문의 (061-450-2950, 6200)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영어도 배우고… 문화 체험도 하고…

목포대,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습캠프’ 운영

목포대학교가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학습캠프’를 운영한다.

목포대 언어교육원(원장 김재준 교수) 주관으로 오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열리는 이번 캠프는 원어민 강사의 사전 평가와 면접으로 초급반 10명, 중급반 10명 등 모두 20명을 선발한다.

특히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생 전원이 대학 기숙사에서 학습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기본 교육 과정 이외에 놀이 등을 통해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목포대는 다음달 8일부터 22일 까지 초등학생 20명을 선별해 하루 4시간씩 영어회화와 영문법 등을 교육하는 ‘비합숙 영어캠프’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언어교육원 행정실에서 받고 있다. 문의 (061-450-2950, 6200)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영어도 배우고… 문화 체험도 하고…

목포대,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습캠프’ 운영

목포대학교가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학습캠프’를 운영한다.

목포대 언어교육원(원장 김재준 교수) 주관으로 오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열리는 이번 캠프는 원어민 강사의 사전 평가와 면접으로 초급반 10명, 중급반 10명 등 모두 20명을 선발한다.

특히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생 전원이 대학 기숙사에서 학습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기본 교육 과정 이외에 놀이 등을 통해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목포대는 다음달 8일부터 22일 까지 초등학생 20명을 선별해 하루 4시간씩 영어회화와 영문법 등을 교육하는 ‘비합숙 영어캠프’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언어교육원 행정실에서 받고 있다. 문의 (061-450-2950, 6200)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영어도 배우고… 문화 체험도 하고…

목포대,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습캠프’ 운영

목포대학교가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학습캠프’를 운영한다.

목포대 언어교육원(원장 김재준 교수) 주관으로 오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열리는 이번 캠프는 원어민 강사의 사전 평가와 면접으로 초급반 10명, 중급반 10명 등 모두 20명을 선발한다.

특히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생 전원이 대학 기숙사에서 학습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기본 교육 과정 이외에 놀이 등을 통해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목포대는 다음달 8일부터 22일 까지 초등학생 20명을 선별해 하루 4시간씩 영어회화와 영문법 등을 교육하는 ‘비합숙 영어캠프’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언어교육원 행정실에서 받고 있다. 문의 (061-450-2950, 6200)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영어도 배우고… 문화 체험도 하고…

목포대,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습캠프’ 운영

목포대학교가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학습캠프’를 운영한다.

목포대 언어교육원(원장 김재준 교수) 주관으로 오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열리는 이번 캠프는 원어민 강사의 사전 평가와 면접으로 초급반 10명, 중급반 10명 등 모두 20명을 선발한다.

특히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생 전원이 대학 기숙사에서 학습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기본 교육 과정 이외에 놀이 등을 통해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목포대는 다음달 8일부터 22일 까지 초등학생 20명을 선별해 하루 4시간씩 영어회화와 영문법 등을 교육하는 ‘비합숙 영어캠프’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언어교육원 행정실에서 받고 있다. 문의 (061-450-2950, 6200)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영어도 배우고… 문화 체험도 하고…

목포대,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습캠프’ 운영

목포대학교가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학습캠프’를 운영한다.

목포대 언어교육원(원장 김재준 교수) 주관으로 오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열리는 이번 캠프는 원어민 강사의 사전 평가와 면접으로 초급반 10명, 중급반 10명 등 모두 20명을 선발한다.

특히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생 전원이 대학 기숙사에서 학습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기본 교육 과정 이외에 놀이 등을 통해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목포대는 다음달 8일부터 22일 까지 초등학생 20명을 선별해 하루 4시간씩 영어회화와 영문법 등을 교육하는 ‘비합숙 영어캠프’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언어교육원 행정실에서 받고 있다. 문의 (061-450-2950, 6200)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영어도 배우고… 문화 체험도 하고…

목포대,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습캠프’ 운영

목포대학교가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학습캠프’를 운영한다.</